

2024. 12. 22. 오후 1 시, 성탄예배,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장소: Fellowship Hall)

본문: 마태복음 Matthew 2:7-12

제목: (성탄 예배) 예수를 만난 사람들(45)- 헤롯과  
동방 박사

(표준새번역) 2:7 그 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ESV) 2:7 Then Herod summoned the wise men  
secretly and ascertained from them what time  
the star had appeared.

2:8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하였다.

2:8 And he sent them to Bethlehem, saying, "Go  
and search diligently for the child, and when  
you have found him, bring me word, that I too  
may come and worship him."

2:9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2:9 After listening to the king, they went on their  
way. And behold, the star that they had seen  
when it rose went before them until it came to  
rest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2:10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2:10 When they saw the star,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2:11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2:11 And going into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with Mary his mother, and they fell down and worshiped him. Then, opening their treasures, they offered him gifts, gold and frankincense and myrrh.

2:12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2:12 And being warned in a dream not to return to Herod, they departed to their own country by another way.

### 도입 예화: 로마 vs. 파르티아

BC 44 년 율리우스 시저가 암살 당하고 로마는 내전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틈을 타서 로마의 동쪽에 있던(지금의 이란 지역) 파르티아 왕국이 세력을 확장합니다. 당시 유다 지역은 헤롯대왕(마 2)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안티고노스 2 세가 파르티아를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헤롯은 갈릴리, 사해를 거쳐 남쪽을 통해 결국 로마까지 도망갑니다. 로마 원로원은 는 유대 지역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서 헤롯을 왕으로 세우고 군대를 지원합니다. 헤롯은 BC 37 년에 안티고노스를 밀어내고 유대 왕이 됩니다.

파르티아 왕국은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남 아시아, 중앙 아시아, 유럽을 연결시키며 부를 축적했고, 바빌로니아로부터 내려오는 천문학과 점성술 연구가 활발했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은 아마 그 파르티아에서 온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줄 ‘왕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 왕의 오심에 대한 태도

왕이 태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과 이스라엘은 불안해하고 당황합니다.

## ✓ 불안과 당황 (헤롯과 이스라엘)

### 1 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2: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1 Now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of Judea in the days of Herod the king, behold, wise men  
from the east came to Jerusalem,

2 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습니다. 자기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으며, 그 왕에게 경배하려고  
왔다고 말합니다.

2:2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였다.

2:2 saying, "Where is h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For we saw his star when it rose[b]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 당황, 소동 → 불안

### 3 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당황합니다.

(표준새번역) 2:3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ESV) 2:3 When Herod the king heard this, he was troubled, and all Jerusalem with him;

개역개정 성경에는 '소동했다'고 기록합니다.

(개역개정) 2: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NIV) 2:3 When King Herod heard this he was disturbed, and all Jerusalem with him.

그들은 혼란스럽고, 곤란하고, 동요되었으며,  
불안했던 겁니다. 이어지는 4 절,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 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묻습니다.

☆ 알지만 반갑지 않는 메시아

2:4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 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 보았다.

2:4 and assembling all the chief priests and scribes of the people, he inquired of them where the Christ  
was to be born.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 지 묻습니다. 네, 헤롯도 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 태어난 왕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다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그들은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반갑고 기쁘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5 절, ‘유대 땅 베들레헴’을 지목합니다.

2:5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2:5 They told him, "In Bethlehem of Judea, for so it is written by the prophet:

6 절, 미 5:2 을 인용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2:6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않다. 네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다."

6 "“And you, O Bethlehem, in the land of Judah, are by no means least among the rulers of Judah; for  
from you shall come a ruler who will shepherd my people Israel.”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며 살아왔지만, 사실은  
‘아직 안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파르티아에서 왔다고 추측하면 헤롯에게는 파르티아의 점성술사, 학자가 반갑지 않았을 겁니다. 몇 년 전 반란으로 자기가 도망갔던 일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헤롯은 더 불안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헤롯은 메시아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지금 왕은 자기인데, 사람들은 진짜 왕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거기다가 헤롯은 혼혈 유대인이며, 왕의 혈통인 유다 지파도 아닙니다. 늘 열등감을 안고 살아가던 헤롯은 성전 재건을 해서라도 왕권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헤롯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메시아 왕’이 유대 땅 어딘가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은 헤롯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7 절,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 별이 타나난 때를 묻습니다. 캐어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표현은 ‘정확한 시기’에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표준새번역) 2:7 그 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ESV) 2:7 Then Herod summoned the wise men secretly and ascertained from them what time the star  
had appeared.

8 절,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메시아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자기도  
경배할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2:8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하였다.  
2:8 And he sent them to Bethlehem, saying, "Go and search diligently for the child, and when you have  
found him, bring me word, that I too may come and worship him."

하지만, 16 절, 헤롯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다  
죽입니다. 베들레헴의 인구수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2 세 이하의 아이들이 대략 6~25 명 정도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2:16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16 Then Herod, when he saw that he had been tricked by the wise men, became furious, and he sent  
and killed all the male children in Bethlehem and in all that region who were two years old or under,  
according to the time that he had ascertained from the wise men.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헤롯 왕은 불안해서  
살인(학살)을 저지르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침묵합니다. 그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지리 않았고,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반가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도 이 세상이 살 만 했던 겁니다.

이들이 달리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 ✓ 기대와 기쁨(동방에서 온 지혜자들)

✧ 기대하며 찾아가다

박사'(Magi)라는 단어는 점성술, 천문학을 연구하며,  
왕의 정책을 보좌하며 조언하고 도와 주던 파르티아  
왕국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2 절, 경쟁국가인  
로마가 지배하는 땅에서 태어난 왕을 경배하려고  
수개월의 길은 왔습니다. 이것 자체가 소신있는  
행동이며, 그들의 소망과 기대가 엿보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가장 큰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2:2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였다.

2:2 saying, "Where is h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For we saw his star when it rose[b]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기대와 소망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9 절, 베들레헴으로 출발하자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나타나 인도합니다. 아기가 있는 그 마구간 위에 멈춥니다. 어떻게 우주 공간의 별이 이 지구위 특정 건물을 가리킬 수 있는지 설명이 곤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2:9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2:9 After listening to the king, they went on their way. And behold, the star that they had seen when it rose went before them until it came to rest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하나님은 기대하고, 몸을 움직여 찾아 나서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보여 주지 않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자포자기하며 주저 앉는 것은 건강한 인격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데까지, 하나님이 보여 주신데까지 가십시오! 거기 가면, 다음 길이 보이실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가 믿는대로 자기 몸을

10

일으켜 보이는 데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이 가장 잘 아는 별을 통해 인도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몸을 움직여 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데까지 몸을 움직여 가십시오.

12 절,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2:12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2:12 And being warned in a dream not to return to Herod, they departed to their own country by another way.

작은 믿음이 작은 몸을 움직여 별빛이 보여주는데까지 갔을 때, 10 절,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 크게 기뻐하다

2:10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2:10 When they saw the star,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그리고 11 절, 왕을 만나 경배 합니다.

☆ 왕을 만나 경배하다

2:11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2:11 And going into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with Mary his mother, and they fell down and worshiped him. Then, opening their treasures, they offered him gifts, gold and frankincense and myrrh.

이 땅에 왕이 오셨을 때,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당황하고 불안해 하며 배척했고, 동방의 지혜자들은 기대하며 기뻐하면서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곧 받아들이십시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첫번째 오심(초림)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태도를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첫번째 오심, 성탄)에 대한 태도는 예수님의 재림(두번째 오심, 심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 왕의 두번째 오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헤롯대왕처럼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소식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처럼 두렵고 당황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이 동방 박사들처럼 기대가 되고, 몸을 움직여 예수를 맞으러 가고 싶으십니까?

성탄, 크리스마스는 이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두근거림이 예수님의 오심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인 설렘, 분위기에 휩쓸린,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면, 예수님의 재림 소식(마지막 날의 심판 소식)을 듣는 순간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겁니다.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예수님의 처음 오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가 사랑을 가지고 이땅에 오신 날’, 온 인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날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나의 ‘믿음’과

‘태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문화의 아이콘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두번째 다시 오십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고, 이제 추수하러,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은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와 찬양으로 맞으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번째 오신 말구유의 아기 예수를 축하하며, 즐거워했듯이, 두번째 오실 예수,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며, 축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없다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다시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말구유에 누워 있던 그 아기 예수가 이제 곧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 ➔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첫번째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소서
- ➔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새하늘과 새땅)를 완성하실 예수님의 두번째 오심(재림)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이 땅을 살게 하소서